

트릴링과 프로이트

柳 宗 鎬

〈梨花女大 英文學科〉

1

한사람의 문학적 개성을 간결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라이오넬 트릴링 Lionel Trilling과 같은 비평가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가 없다. 창작적인 글과는 달리 비평적인 글은 잠재적 의미의 심화보다 명시적 의미의 정확성을 지향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릴링같은 비평적 개성의 정의는 여전히 용이하지 않다. 그는 독자적인 미학이나 이론체계를 개발한 문학이론가가 아니다. 死後에 발간된 전집은 12권에 이르지만 그 중 몇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책은 그때그때의 필요를 위해 씌어진 비평적 에세이를 모은 책이다. 또 그의 비평가로서의 명성은 단일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저서보다도 초기의 몇몇 평론집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화제를 다루고 있는 에세이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의 완결된 知的 肖像畫를 마련해 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그가 쓰는 개념의 불명확성이 추가될 수 있다. 그가 즐겨 자주 쓰고 있는 말에 의지 will, 자아 self, 문화 culture 등이 있다. 이러한 말들은 아주 비근한 말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함축이 도리어 모호하고 유동적이다. 맥락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게 마련인 이러한 말에서 일관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단일한 지적 초상화로 재구성하는 어려움도 소홀치 않다. 그가 비평적 생애를 통해서 강조했던 다양성과 복합성, 곤란성과 가능성은 그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거부할 길 없는 지적인 도전으로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뜬지 10년이 넘는 오늘 그에 대한 비평적 동의는 서서히 그리고 확고하게 형성되어 가는 것 같다. 이 비평적 동의는 트릴링을 문학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중요시하면서 비평의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는 광의의 文化批評家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트릴링은 에드먼드 윌슨 Edmund Wilson과 함께 문화 특히 미국문화의 비평가에 속한다. 그는 정치, 교육학, 심리학, 自己定義 등의 문제에 자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들의 문학에 대한 관계는 회박한 것이다」¹⁾라는 대목은 비록 유보감이 표명되기는 했

1) René Wellek, *A History of Modern Criticism 1750~1950 Vol. 6: American Criticism 1900~195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6), p. 123.

2 美 國 學

지만 비평적 합의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껏 나온 트릴링 주제의 단행본 가운데서 가장 소상하게 그의 批評軌跡을 추적하고 있는 연구서는 문화비평가로서의 트릴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트릴링은 20세기의 미국 문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화비평가라고 내게는 생각된다. 가장 재기발랄한 텍스트의 정독자는 아니다. 아마 블랙머 Blackmur가 그런 이름에 합당할 것이다. 가장 선두적인 미학 이론가도 아니다. 워싱턴 Wimsatt과 폴드만 Paul de Man이 그런 명예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호기심 많고 폭넓은 문학적 지성도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월슨에 도전할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트릴링의 본령은 무엇인가? 내가 이해하는 한 그의 전문분야는 문화와 개성의 관계이다. 그리고 그의 문화비평은 주로 自己定義의 스타일로 방향지워져 있다.」²⁾ 단행본 연구서의 저자들이 이 점에 있어서 대체로 합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흥미있다. 단행본으로서는 최초인 트릴링 연구서의 저자는 트릴링이 비평가 이상의 존재로서 주제 탐구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거의 어떠한 주제라도 수용하여 비평의 가능성을 확대시켰다」³⁾고 동조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심리학자로서 연구서를 낸 한 저자는 영국의 인문주의 전통에 속하는 트릴링이 「결맞기를 강조하고 현실주의적 경험론을 갖춘 계몽주의와 개성을 강조하고 이상주의적 개방성을 가진 낭만주의의 계승자」⁴⁾라고 정의한다. 그리하여 「역사가, 철학자, 이론가이기 보다는 트릴링은 자신의 지혜 탐구의 리듬 속에 포섭하기 위해서 끈기있게 사고를 세련시킨 감수성이었다」⁵⁾는 대목에서 우리는 트릴링 이해의 정수를 보게 된다.

보다 큰 주제의 단행본에서 그 일부로 트릴링을 다룬 저자들도 대체로 문화비평가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일치점을 보인다. 신비평가들처럼 문학작품을 읽고 반응하는 세 방식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으나 「지식인의 의식 구실을 해온 것이 트릴링의 불가결한 역할이었다. 혹은 케진 Kazin의 말을 빌어 에머슨이 말하는 “부족의 교사” 구실을 해온 것이다」⁶⁾라는 지적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트릴링 파악이 월슨과 트릴링을 같은 유형의 비평가로 규정하면서 강단비평의 세분화에 유보감을 가지고 있던 ‘지식인이자 문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두사람의 비교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미묘한 차이를 감득하게 하는데 다음과 같은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트릴링보다 한 십년 연장인 월슨은 보다 폭넓고 보다 다양한 성취를 보여준다. 그의 호기심은 보다 강렬하고 그의

2) Mark Krupnick, *Lionel Trilling and the Fate of Cultural Criticism*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6), p. 13.

3) Robert Boyers, *Lionel Trilling; Negative Capability and The Wisdom of Avoidance*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77), p. 2.

4) Edward Joseph Shoben, Jr., *Lionel Trilling*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1981), p. 238.

5) William M. Chace, *Lionel Trilling: Criticism and Politic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0), p. 187.

6) Grant Webster, *The Republic of Letters: A History of Postwar American Literary Opin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p. 281.

학분은 보다 폭넓다. 그러나 트릴링은 자기 문제로 거론한 문제를 월슨보다 심오하게 다루었다. 이러한 차이를 주목하고나서 또 하나의 유사성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두사람이 모두 단체적 정치행위가 얼마나 매력있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얼마나 방만한 것인가를 알았다.⁷⁾

이러한 지식인 文人 또는 문화비평가라는 주류적인 트릴링 이해의 한편으로는 그를 협의의 심리학적 비평가 또는 정신분석 흐름의 비평가로 정의하는 관점도 꽤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트릴링 定義가 현대미국 비평의 개관서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미국의 현대비평 Modern American Criticism」에서 월터 서튼 Walter Sutton은 트릴링을 ‘심리학적·신화비평’의 章에서 다루면서 ‘프로이트심리학과 비평’이란 소제목아래서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이트에 관한 트릴링의 초기 에세이들을 집중적으로 개괄하고 나서 트릴링이 말하는 자아와 ‘생물학적 이성 biological reason’ 사이에 연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⁸⁾ 아놀드 골드스미스 Arnold L. Goldsmith도 미국비평의 개관서에서 「비평과 심리학적 이론」이란 章에서 ‘라이오넬 트릴링과 심리학적 비평’이란 소제목으로 트릴링을 거론하고 있다. 골드스미스도 트릴링의 프로이트에 관한 초기 에세이를 검토하면서 트릴링의 프로이트 이해를 개괄하고 있는데 비판적 검토라기 보다는 간략한 요약으로 일관하고 있다.⁹⁾ 위에 적은 두권의 책에서 공통되는 것은 트릴링의 다양한 관심중에서 프로이트에 관계되는 몇편의 초기 에세이로 비평적 주의를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概觀書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개관서이기 때문에 더욱, 지적되어야 할 국면이다. 적어도 10권 분량의 비평적인 글을 남겨놓고 있는 비평가의 업적 가운데서 불과 너덧편의 에세이로 그를 정의한다는 것은 중대한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된다. 거론된 에세이들이 비평가의 대표적인 글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변경시켜 주지 않는다. 더구나 비평적 성취에 있어 커다란 기복을 보여준이 없이 均質性을 유지하고 있는 트릴링의 경우에 그러하다. 현대 미국비평 概觀書 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심리학적 비평이란 항목에서 다루기에 적절한 믿음직스러운 대상으로 떠오른 트릴링의 餘他 국면이 부담스럽게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구상한 분류체계속에서는 광의의 지식인 文人이자 문화비평가인 월슨이나 트릴링을 편입시킬 마땅한 자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자유주의 및 마르크스주의 비평’이나 ‘마르크스주의 및 사회학적 비평’이란 항목에서 월슨이나 트릴링의 심사가 편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미리 설정한 분류체계를 상위개념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개개 비평가를 억지로 귀속시킨다는 것은 비평적 편의는 될지 몰라도 엄정한 비평행위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Chace, *Trilling*, pp. 187-88.

8) Walter Sutton, *Modern American Criticism*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63), pp. 197-201 참조.

9) Arnold L. Goldsmith, *American Literary Criticism: 1905~1965* (Boston: Twayne Publishers, 1979), pp. 76-78 참조.

4 美 國 學

분류체계의 구상은 엄격하고 세밀한 현상 검증과정을 거쳐서 뚜렷한 왜곡없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자의적인 분류체계의 체계를 위해서 무게있는 비평적 개성의 전체성이 손상된다는 것은 중대한 왜곡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래에서 우리는 트릴링에 있어서의 프로이트의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심리학적 비평가라는 트릴링 定義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져볼 것이다.

2

1971년 봄 퍼듀大學 영문과 대학원에서 문학이론에 관한 일련의 세미나를 열고 관련된 비평가를 초청하여 자기 작품을 토론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트릴링은 비평가로서의 성장궤적을 얘기하면서 自傳的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토로하고 있는데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에 대한 경의 표명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나의 비평활동과 지적 생활 일반에 대해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체계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점은 의심한 바 없다」¹⁰⁾고 말하고 있다. 두 사람이 모두 人文主義의 전통 아래서 엄격한 知的訓練을 받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트릴링은 두 사람이 모두 폭로원리의 주창자로서 탁월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 영향의 실체를 이렇게 부연 설명해 놓고 있다.

「극히 짙막한 기간 동안 그것도 아주 가당치않게 나는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였다. 체계적인 사상가로서의 프로이트에게 나는 더욱 경도하게 되었고 지금에도 변함은 없다. 그러나 내게 대한 영향으로 인정하고 싶은 것은 이론적인 권위라기 보다도 방금 말한 효과이다. 즉 그 체계들에게 호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강요하다싶이하는 생생하고 친근한 역사의식, 사회의식, 문화의식이다. 그리고 그 체계들이 유발시키는 역사, 사회, 문화의 因果원리를 발견해 내야겠다고 하는 필요성의 인식이다.」¹¹⁾

이와 같은 술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결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문화이해나 세계이해의 뼈대에 관한 것이지 이들 체계의 구체적 세목과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트릴링에 대한 마르크스의 영향력은 문학의 사회역사적 성격에 대한 고려나 단선적 심미주의의 거부와 같이 원론적인 수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傾倒가 한결 진했다고 술회하고 있으며 사실 그 흔적이 역력한 프로이트의 경우에도 그것은 프로이트 심리학의 개념을 참조하여 작품해석에 입하는 정신분석 흐름의 비평에서 보게 되는 영향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트릴링이 30세 전후해서 정력을 기울였으며 애초 학위는 문으로 구상했던 「매슈 아놀드 Matthew Arnold」에서 프로이트가 언급되는 것은 단 한번 뿐이다. 대표적인 첫 평론집에서도 작품해석에 있어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개념이 활용되고

10) Lionel Trilling, *The Last Deca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 237.

11) 같은 곳.

있는 것은 단 한 편 뿐이다.

「不滅頌 The Immortality Ode」이란 에세이는 주로 소설과 작가를 검토하고 있는 대부분의 트릴링批評과는 달리 詩 분석에 바쳐진 글이라는 점에서도 예외적인 글이다. 이 글은 워즈워드의 유명한 「어린 시절을 회상하여 不滅을 알게 됨의 頌歌 Ode: Intimations of Immortality from Recollections of Early Childhood」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이 작품은 워즈워드가 자신의 시적 능력의 소멸을 예도하면서 시에 대해 의식적으로 작별을 고하고 있는 시라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다. 「환영의 빛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영광과 꿈은 이제 어디에 있는가?」라는 대목이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환영의 빛’, ‘영광’, ‘꿈’이 모두 한가지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그가 시를 창작할 수 있었던 시적 능력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이 시가 특수한 시적 능력의 소산이라는 옛민음에 기초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릴링은 이 작품이 근본적으로는 成長을 주제로 한 시라고 주장한다. 작품의 핵심적인 대목을 해석함에 있어 트릴링은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가없는 무한감 oceanic feeling’이라는 개념을 원용한다. 로망 롤랑이 모든 종교적 감정의 원천이라고 상상 하였던 이 감정이 외부세계의 자극과 자신의 감정 자극을 채 구별하지 못하는 갓난아의 감정상태의 잔재일지도 모른다고 프로이트는 추측한다. 프로이트가 거론한 ‘가없는 무한감’을 원용하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트릴링은 시의 핵심적 부분이 현실감각의 발전을 다루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不滅頌」이 소멸되어 가는 시적 능력에 대한 告別의 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낙원에 대한 고별의 시이며 새로운 감수성을 환영하는 시라고 결론짓고 있다.¹²⁾

프로이트의 개념을 원용하여 작품해석을 실천하고 있는 경우를 겨우 「不滅頌」 정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데도 몇몇 개관서가 트릴링을 심리학적 비평가의 계열에 편입시켜 놓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1960년도 출간된 「정신분석과 미국문학비평 Psychoanalysis and American Literary Criticism」의 영향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의 저자는 「라이오넬 트릴링의 프로이트 개념의 창조적 확대」라는 章에서 얼마쯤 비판적으로 그러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트릴링을 다루고 있다.

「트릴링은 정신분석과 문학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의 글을 쓴 소수의 명망있는 비평가중의 한사람이다. 상대적인 비평활동 중에 정신분석의 이념을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이외에도 그는 서너차례 정신분석과 문학의 관계가 과거에 어떠했고 장차 어떻게 될것인가를 평가하는데 각별한 주의 기울인 바 있다. ……가장 초기의 에세이에서조차 그가 다른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보여준 것 보다 정신분석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다. 그가 非專門의인 언어로 정신분석의 개념을 주의깊게 정식화한 것은 그가 그 개념 내용이나 경계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결론은 보수적이고 진술은 판단력을 보여주고 있다.」¹³⁾

12) Lionel Trilling, *The Liberal Imaginatio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1), pp.144-45.

13) Louis Fraiberg, *Psychoanalysis and American Literary Criticism*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60), p. 202.

6 美 國 學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트릴링 章은 그의 프로이트 思想과 문학을 다룬 에세이를 비판적으로 개관하고 상당한 유보감을 곁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론 부분에서는 트릴링 처럼 정신분석의 의미를 확고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 비평가는 달리 없고 또 것처럼 정신분석을 비평 속에 훌륭하게 통합한 비평가도 달리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⁴⁾ 이 책이 정신분석과 문학비평을 주제로 하고 윌슨이나 케너스 버크 Kenneth Burke 등 쟁쟁한 비평가를 다루면서 트릴링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難點은 서튼이나 골드스미스가 미국의 문학비평 일반을 다루면서 윌슨과 트릴링을 심리학적 비평가나 정신분석 흐름의 비평가로 분류했을 때 야기되는 전체성의 훼손과 역사적 불공정의 문제이다. 트릴링의 비평가로서의 다양성과 참모습을 왜곡시키는 한편 두 사람의 개관서는 트릴링 서술에 있어서도 거의 전적으로 「정신분석과 미국 문학비평」의 제10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서튼과 골드스미스의 트릴링 서술은 비평적 便宜라는 국면에서 二重의인 반칙을 범하였고 아울러 일면적이고 零細화된 트릴링 像을 유포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특히 1979년에 출간된 골드스미스의 책은 저자 자신 도식적인 배열임을 인정하고 또 트릴링이 다방면의 재능을 보여주고 있고 사회학적, 심리학적, 인문적 관심이 혼합된 비평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정신분석과 미국의 문학비평」의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정신분석과 미국의 문학비평」이 간행된 후 20년 동안의 비평풍토의 동향과 ‘비평의 비평’의 현황을 도의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트릴링을 때로 정신분석 흐름의 비평가로 정의케 하고 또 정신분석에 관한 단단한 지식을 갖춘 비평가라는 성가의 기초가 되어준 것은 대표적 평론집인 「자유주의 상상력 The Liberal Imagination」(1950), 「상충하는 自我 The Opposing Self」(1955), 「문화를 넘어서 Beyond Culture」(1965) 등에 실려있는 몇편의 에세이다. 트릴링과 정신분석의 관계, 또 트릴링의 프로이트 理解의 실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세이의 숙독이 불가결하다. ‘프로이트와 문학’, ‘예술과 신경증’, ‘영웅으로서의 시인: 편지를 통해 본 키츠’, ‘프로이트: 문화의 안팎’과 같은 에세이가 바로 그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트릴링의 프로이트 觀을 정공으로 드러낸 최초의 에세이 ‘프로이트와 문학’¹⁵⁾의 중요성은 누구의 눈에나 분명해 보인다. 프로이트와 낭만주의운동의 관계, 프로이트가 문학에 끼친 영향, 프로이트 사상의 강점이자 약점의 원천이 되어준 실증주의적 합리

14) 위 책 p. 235.

15) ‘Freud and Literature’는 1940년 The Kenyon Review에 발표되었는데 약간의 수정과 함께 1947년 Horizon에 다시 발표되었다.

주의, 프로이트의 예술관과 藝術家觀, 문학예술이해를 위한 프로이트의 기여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이 글은 지금에 있어서도 그 유효성을 잃지 않고 있다. 트릴링은 「정신분석이 19세기 낭만주의 문학의 정점의 하나」¹⁶⁾라고 파악한다. 문학과 과학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아의 탐구에 정열적으로 몰두했다는 점에서 낭만주의 문학은 과학적이라고 조금은 대담한 주장을 걸고 있다. 이어서 낭만주의 문학에서 발견되는 어린이, 여성, 농부, 미개인에 대한 관심을 비롯해서 도덕의 혁명과 性的 혁명, 마음의 분리, 죽음의 所望, 자기 파괴적 충동, 꿈에 대한 지대한 관심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프로이트사상과의 친근성을 상기시킨다. 부연해서 말한다면 유럽 작가시인들의 內省을 통한 자기검토의 문학이 정신분석과 연관되는 것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이어서 현대문학에 끼친 프로이트의 영향을 개관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프루스트이다. 작품의 포제 자체, 수면의 친착, 性的 도착, 마음의 연상작용, 은유에 대한 끈질긴 관심 등이 모두 정신분석의 기획을 시사하지만 프로이트를 읽은 바 없다는 프루스트의 말이 사실이라라는 믿음을 피력한다. 그리하여 傳記作家, 초현실주의자, 카프카, 토마스 만, 제임스 조이스를 프로이트 사상이 끼친 영향의 사례로 열거한다.¹⁷⁾ 곧이어 낭만주의 전통의 反합리주의적 요소와 프로이트思想의 친근성이 거론되는데 프로이트사상에 보이는 反합리주의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투적이리만큼 합리주의적이란면서 ‘삶의 陰地 the night side of life’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토마스 만의 초기 프로이트觀을 비판한다. 정신분석의 목적은 ‘삶의 음지’의 제어였으며 프로이트의 합리주의는 계몽주의 이념을 지지하고 있다고 트릴링은 파악하고 있다.¹⁸⁾

가장 흥미있는 부분이어야 할 프로이트의 예술관을 트릴링은 극히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예술애호가 각별하며 예술이야말로 보람있는 삶의 매력이라고 보고 있음은 사실이다. 예술가 특히 문학자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외경심에 가까운 경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예술과 예술가에 관해서 얘기할 때 경멸투가 된다. 예술은 결국 代理充足이며 그러한 한에서는 현실과 대조되는 환상이라는 것이다. 단지 대부분의 환상과는 달리 환상 이외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항시 유익하다. 예술의 중요 기능의 하나는 麻藥구실을 하는 것이다. 예술은 꿈의 특징을 꿈과 공유하고 있는데 꿈의 왜곡요소를 프로이트는 일종의 內的不正直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예술가는 실질적으로는 신경증환자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프로이트는 본다는 것이다. 트릴링은 신경증환자가 환상에 들려(憑)있는 반면 예술가는 환상을 지배한다고 분명히 함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定式化한다. 프로이트의 예술가관이 적절하지도 충분하지도 못하다고 지

16) Trilling, *Imagination*, p. 35.

17) 위책 pp. 38-40.

18) 위책 pp. 40-41.

8 美 國 學

적하는 한편 트릴링은 미에 대한 감각이 性的 감정에서 유래한다고 단언하면서도 정신분석이 美에 관해서 할 말이 적다는 것을 시인한 프로이트의 말을 상기시킨다.¹⁹⁾ 트릴링은 정신분석적인 잠재적 의미의 해석을 시도한 글들이 흥미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유일한 의미인듯이 내세우는 것에 반대한다.

‘프로이트와 문학’에서 가장 계시적인 부분은 그러나 정신분석이 문학예술에 기여한 바를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다. 트릴링은 정신분석의 기여가 과오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기여가 예술에 대한 특정 진술에 있지 않고 정신분석 특유의 精神觀 내지는 심리관에 있다고 강조한다. 「프로이트가 보는 바로는 마음은 그 대체적인 경향에 있어서 바로 詩를 만들어내는 器官이다」²⁰⁾라는 귀결은 트릴링이 프로이트를 거론하는 맥락에서 자주 되풀이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간결한 체로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다. 마음이 논리없이 작동하는 점도 이와 연관해서 강조되고 있다.

예술과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 트릴링은 1920년에 발표된 「쾌락원리를 넘어서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에서 제기된 두가지 쟁점을 공명적으로 검토한다. 초기 프로이트 이론에 의하면 불쾌한 꿈을 포함하여 모든 꿈은 꿈꾸는 사람의 소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꿈은 현실원리와 상충하는 쾌락원리에 봉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의 이론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현상과 마주치게 되었다. 자신의 신경증을 야기시켰고 촉진시켰던 고통스럽고 불쾌한 상황을 되풀이 꿈속에서 반복하는 戰爭神經症환자의 경우와 부딪치게 된 것이다. 어린이 놀이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쾌락주의적인 해석으로 탕진되지 않는 꿈 현상이다. 그리하여 프로이트는 쾌락원리를 넘어서는 反復強迫觀念 repetition-compulsion을 상정하고 이러한 꿈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재생시키고 재경험하여 그것을 제어하려는 기도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트릴링은 여기서 비극의 기능을 읽어 낸다.

어쨌거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프로이트의 外傷性 神經증의 이론이 시사하는 비극(또한 희극의)의 또하나의 기능을 부정하지 않는다. 즉 그것은 미트라다테스의인 기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삶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보다 큰 고통에 익숙토록 하기 위해 비극이 고통의 同類療法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비극의 카타르시스이론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비극이 안겨주는 적극적인 정복감을 충분히 시사하지 못하는 비극의 기능관이 내포되어 있다.²¹⁾

한편 같은 논문에서 프로이트가 제기하고 있는 죽음소망본능 death instinct에 주목하고 「운명에 순종함에 있어서의 그 궁극적인 비극적 용기」²²⁾를 간과할 수 없다며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19) 위 책 pp. 42-47.

20) 위 책 p. 52.

21) 위 책 p. 55-56.

22) 위 책 p. 56.

‘프로이트와 문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트릴링의 프로이트理解는 단단하고 또 일방적 傾倒나 탐닉의 경향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지식의 현학적 전시보다도 문학의 관점에서 프로이트사상의 의미를 검토한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신분석을 19세기 낭만주의운동의 정점의 하나로 파악하는 있는 것도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신분석이 낭만주의 문학에서 유래했으며 문학운동의 부산물인듯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도 없지 않다. 시간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인과관계인양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²³⁾ 문학자의 입장에서 문학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데서 오는 관점이라는 비판인데 정신분석과 낭만주의의 관계정립은 그러나 문학애호가들의 편향인것만은 아니다. 좁은 의미의 문학탐닉과는 거리가 먼 한 예술사회학자는 정신분석 자체가 일종의 낭만주의라며 정신분석이 낭만적인 기분이거나 낭만주의의 유산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로이트의 실제 정신적 先祖들은 낭만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정신현상에 대한 정신분석 접근법의 전제들은 낭만주의 인생관의 근본적 함축에 속한다. 정신분석은 낭만주의가 그랬듯이 무의식을 보다 높은 형태의 진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보다 거짓없고 보다 영속적인 형태의 진실의 원천이라고 간주한다. 정신분석 치료의 기초일뿐 아니라 자연스런 정신 가동의 판단기준이기도 한 ‘자유연상’의 원리는 낭만주의의 ‘內面的 소리’의 變奏이다.」²⁴⁾ 트릴링이 관찰하고 있는 정신분석과 낭만주의운동의 관계에 대한 異議는 엄밀히 보아 과학사상과 문학사상을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프로이트의 臨牀的 치료 기술적인 글 보다도 사변적 문화론적인 글에 매혹되고 있는 트릴링이 ‘두 문화’를 넘어서 서있는 프로이트에 경도하면서 프로이트사상과 낭만주의 문학의 혈연성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트릴링이 요약하고 있는 프로이트의 예술관 및 藝術家觀도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誤導的이라는 비판도 있다. 주로 프로이트 초기의 글에 의존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함축을 가지고 있는 관점이다. 정신분석가가 현실과 환상을 대립적인 相衝구조로 간주하는 것은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이다. 신경증환자는 자기의 환상이 마치 外的 현실인양 처신하기 때문에 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왜곡을 돌파하도록 재교육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된다. 그러므로 예술이 자기기만이나 현실 회피로 활용될때 정신분석가는 그것을 치료의 맥락에서 냉대하고 눈총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예술은 본래의 고유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방위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심리적 균형에 있어서의 역할을 위해 모든 방위기제를 분석하고 천착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상식이다. 그러나 신경증 환자의 예술의 誤用에 대해서 치료상의 필요로 異議를 제기하는 것을 가리켜

23) Fraiberg, *American Lit. Criticism*, p. 204.

24) Arnold Hauser, *The Philosophy of Art History*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1969), pp. 62-63.

프로이트가 예술을 환상으로 간주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다.²⁵⁾ 요컨대 신경증 환자의 치료라는 맥락에서 신경증 환자에 있어서의 예술의 오용과 관련하여 현실의 대립항목으로서의 예술을 설명한 것이 예술일반론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프로이트 사상에 있어 정상과 병의 경계는 확연한 것도 엄밀한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대리적 충족이나 보상이라는 예술관이 낭만주의 예술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할 때 프로이트의 예술관은 낭만주의 문학과의 연관속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임상적인 치료의 맥락에서 토로된 誤用되었을 때의 예술의 특정 설명이라고 해서 변호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지나친 단순화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고 중대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화를 통해서 충격적으로 드러나며, 단순화의 과정 없이는 쉽게 식별되지 않는 그러한 국면이 있게 마련이다. 단순화된 채로 전달되고 있는 프로이트 예술관에도 그러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드러나는 국면이 있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약이나 대리충족이라는 요약된 예술관을 낭만주의 예술 일반과 관련시켜 검토하는 일일 것이다.

프로이트의 ‘반복강박관념’이 비극의 기능에 대한 시사가 된다면 트릴링이 거론한 ‘미트리다테스의 기능’이 반드시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옛날 폰투스 왕 미트리다테스가 소량의 독을 계속적 누진적으로 섭취함으로써 면역성을 길러 독살을 모면하였다는 전설에 의거하여 이름붙인 ‘미트리다테스적 기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이론 해석에서도 보이는 바이고 또 「비극이 스토이씨즘의 훈련」이라는 꼬르네이유의 말속에도 시사되어 있는 바다.²⁶⁾ 그러나 프로이트의 임상적 관찰을 통해서 확인된 현상을 비극효용론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그것을 전파하는데 기여한 공적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문학외적인 지식이나 통찰이 문학회해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明示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의 유효성을 실증하고 있다. 그 점 ‘프로이트와 문학’은 트릴링 자신의 비평방법의 천명으로서도 뜻깊다. 프로이트흐름의 해석방법의 불충분함과 부적성의 지적이 곧 우리가 예술작품을 다루는 많은 방법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文學外的 지식이나 예술가 자신에 관한 지식 및 정보가 작품이해를 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그는 강력하게 피력한다.²⁷⁾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비평가는 타자를 통해서 자아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4

‘프로이트와 문학’ 보다 5년 후에 발표된 ‘예술과 신경증’은 보다 한정된 주제를 집중적

25) Fraiberg, *American Lit. Criticism*, p. 207.

26) Wellek, *American Criticism*, p. 127.

27) Trilling, *Imagination*, p. 49.

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의 포괄성을 특징으로 하는 前作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에세이는 예술가의 정신건강이라는 문제를 심도있게 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낭만주의 운동과 때를 같이 해서 19세기 초에 널리 서구문화의 주목을 받게 된다. 그 이전에도 시인이 미치광이라는 말은 통용되었지만 그것은 시인의 마음과 철학자의 마음은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19세기 이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통념이 형성되게 되었다. 초기의 프로이트가 예술가를 대리충족을 통해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신경증환자인양 처리함으로써 정신분석은 19세기의 속물주의가 유포한 통념을 보증해 주는 듯이 보였다. 신경증과 예술창조 사이에 가로놓인 듯이 보이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예술과 신경증’의 일관된 주제이다.

여기서 트릴링은 에드먼드 윌슨의 ‘상처와 활 the wound and the bow’ 이론을 비판한다. 윌슨은 소포클레스의 ‘필록테테스’에 주목하면서 본래의 신화, 앙드레 지드와 같은 현대작가의 창조적 변형등을 참조하여 그 잠재적 의미를 읽어낸다. 헤라클레스의 활과 毒矢를 가진 활의 명수 필록테테스는 독사에 물려 고약한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트로이 遠征길에서 외딴섬에 홀로 버림받게 되지만 다시 그리스 진영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의 활솜씨가 필요해서 다시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록테테스에게서 윌슨은 천재와 병이 마치 기운과 신체손상처럼 뱉 수 없이 얽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함축을 읽어낸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病의 희생자는 그 때문에 사회 속에서 혐오스러운 존재이고 의지할 곳 없게 되지만 그는 동시에 누구나 존경해야 하고 또 正常人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빼어난 技藝의 소유자이기도 한 것이다. 윌슨은 예술가와 사회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필록테테스를 해석한다. 예술가는 창조적 비전을 획득한 대가로 혐오스러운 질병을 갖게 되었으며 비록 사회가 그를 버리기는 하지만 그의 예술의 치유력이나 효용때문에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²⁸⁾ 역으로 부연한다면 예술가는 영혼의 병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그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예술가의 재능을 얻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트릴링은 이러한 ‘상처와 활’ 이론의 배후에서 원시적인 믿음의 변형을 본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원시적인 생각이 서구 문화속에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으며 한 분야에서의 좌절이 다른 분야에서 보상받고 충족되게 마련이라는 통속적인 믿음을 낳게 했다고 생각한다. 고통과 힘 사이의 연관에 관한 통념은 한편으로 고통의 인내를 통해서 한 인간이 증명된다는 생각도 낳게 하였다. 成年式때 과하는 儀式的 고통도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이러한 통념이 정신력에 관한 약간의 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경증환자가 정상인보다 불안하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국면을 더욱 잘 보고 또 강렬하게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능력의

28) Edmund Wilson, *The Wound and the Bow* (New York: Farrar Straus Giroux, 1978), pp. 236-42. 참조

뿌리와 천재의 원천을 신경증에서 찾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트릴링의 생각이다.²⁹⁾ 예술가들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분명하게 실토한 바가 많고 편지, 일기, 자서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신분석적인 설명에 대한 예증을 풍부하게 제공해 주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술가가 제공해 주고 있는 풍부한 재료를 근거삼아 그들이 病的이라고 시사하려 한다면 다른 모든 知的 활동에 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가들에게 해당되는 특수한 범주는 없다」³⁰⁾고 생각하는 것이다. 윌슨의 ‘상처와 활’ 이론은 정신분석에 대한 보다 단단한 이해에 의해서 수정 보완된다.

「신경증을 상처로 파악하고 있는 문학적 통념은 극히 誤導的이다. 그것은 어떤 수동성을 시사하게 마련인데 프로이트를 따른다면 우리는 신경증을 하나의 활동 activity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목적이 있는 활동, 특수한 종류의 활동, 하나의 갈등 conflict으로 이해해야 한다.」³¹⁾

이 갈등은 자아의 사회적 인간적 측면이 동물적 성질과 겨루는 싸움으로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자아와 이드 id의 갈등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병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건강에 이바지하면서 혹은 삶에 이바지하면서 병들어 있는 것이다.」³²⁾ 시인이나 예술가가 병적인 존재이거나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은 프로이트 심리학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정신경제 mental economy란 관념과 연결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한정된 정신력의 축적만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며 어느 한 영역에서 소비되는 심적 에너지의 양은 다른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감소시킨다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러한 정신경제설에 기초한 ‘상처와 활’ 이론을 프로이트 사상 자체로 비판하면서 트릴링은 펠룩테테스神話가 예술적 능력의 기원을 설명하는 설명적 신화가 아니라 취약성이 강점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강점이 취약성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교훈적 도덕적인 우화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술가는 자기 신경증의 성공적인 개관화 때문에 예술가인 것이다.……그의 천재성은 그의 지각능력, 표현능력, 이해능력을 통해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면서 「작품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만들고 완결하는 능력은 그의 건강한 국면」³³⁾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낭만주의 운동과 함께 크게 유포된 병적인 천재라는 통념의 사회적 기원을 설명하면서 르네상스나 신고전주의 시대의 건강한 시인관의 복원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한 트릴링의 시도가 서구 근대의 인문주의 전통에 대한 정열적인 충실에 기초하고 있음은 말할것도 없다.

예술가나 시인의 기본적인 건강성이라는 생각은 트릴링의 가장 빼어난 에세이의 하나라고 평가되는 영웅으로서의 시인 : 편지를 통해 본 키츠 The Poet as Hero: Keats in His

29) Trilling, *Imagination*, pp. 167-8.

30) 위책, p. 171.

31) 위책, p. 177.

32) 위책, p. 178.

33) 위책, p. 179.

Letters'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키츠의 생애와 작품 그리고 상냥함, 걱정, 용기와 같은 정신경향이 정신분석의 개념과 뼈대를 통해서 조명되고 있는 이 에세이는 시인이해를 위해서 프로이트사상을 시종일관 적용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글이기도 하다. 키츠는 영국시인 가운데서 가장 관능적인 시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가장 광범위하게 먹기와 마시기,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쾌감과 불쾌감을 언급한 시인으로 드러난다. 그리하여 감각적인 것, 민감한 것, 관능적인 것이 하나가 된 시인이라는 규정을 하는데서도 정신분석의 분석 단위의 채용을 보게 된다. 傳記的 사실과 시의 경향 사이에서 어떤 관련을 설정하면서 트릴링이 발견하고 있는 특징의 하나는 쾌락원리와 현실원리의 현저한 발전이다. 「그런데 키츠에게서는 현실원리가 아주 강력하였다.……그리고 현실원리는 쾌락원리의 힘에 비례하여 강력하였다. 철학과 지식, 지성의 문제 등은 그에게 있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삶의 重荷와 연관되어 있었다.」³⁴⁾ 이것은 시인을 신경증환자와 동일시하는 통념과는 아주 동떨어진 시인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원리와 쾌락원리가 모두 강력하였던 키츠는 자기실현을 희구하는 창조적 자아와 고통으로 차있는 화해하기 어려운 환경세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있었다. 이렇게 상충되는 힘과 요구의 균형이 바로 키츠가 말하는 '소극적 능력 Negative Capability'의 기초가 되어 주고 있는 것이다.

「범백사에 관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는 능력인 소극적 능력은 자기동일성의 의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 자기동일성의 징표이다. 자기존재와 자기동일성을 확신할 수 있는 自我만이 체계적인 확실성의 감옥없이도 지날 수 있는 것이다. 반쯤의 지식에 만족하는 것은 모순되는 지식들에도 만족하는 것이다. 그것은 '슬픔이 지혜임'을 믿으면서 동시에 '지혜가 우매함'을 믿는 것이다. 키츠가 관심하는 것은 모든 진실이라기 보다는 사랑과 죽음의 모순 사이에서, 자기동일성의 의식과 확실한 고통 및 소멸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이다.」³⁵⁾

키츠가 말하는 소극적 능력은 삶에 대한 시적 비전을 가능하게 하며 삶의 재앙의 끔찍한 진실을 보게 하는 능력이다. 키츠의 진실은 美라는 유명한 귀절은 「비극이 마련해 주는 재앙이나 추함에 대한 반응의 정확한 묘사이다. 비극의 핵심은 美로 파악된 추악하거나 고통스러운 진실이기 때문이다.」³⁶⁾라고 트릴링은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소극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능력이 이승의 삶을 '영혼을 만들어내는 골짜기'라고 정의한 키츠의 이념을 가능하게 했다고 트릴링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트릴링의 키츠理解가 상충하는 원리와 힘이라는 프로이트의 역동적 심리관의 뼈대위에 기초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기초위에서 그가 '소극적 능력'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이 키츠 자신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함을 보게

34) Lionel Trilling, *The Opposing Self*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9), p. 31.

35) 위 책, p. 37.

36) 위 책, p. 36.

된다. 그러나 트릴링批評이 정신분석의 세목을 도입해서 시인을 정의하려는 俗流 정신분석 비평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 : 文化의 안팎 Freud : Within and Beyond Culture’은 본래 ‘프로이트와 문화의 위기’란 제목으로 한 강연을 수정 보완한 에세이다. 한사람의 분명한 창시자를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人文學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프로이트의 과학적 지식을 경의를 가지고 거론한다. 또 바깥에서 문학을 본 프로이트의 기여를 얘기하면서 정신분석과 문학을 비교한다. 양자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쾌락원리와 현실원리 사이의 대립이다. 프로이트는 과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문학적 인문주의에 매여있어 문화보다도 개인의 자아에 관심을 기울였다. 문학은 자아의 문제에 몰두하면서 문화와 상충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자아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서구문화는 성장을 위한 최대의 가능성을 자아에게 부여하려고 하면서도 자아의 성질과 문화에 대한 걱정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조건을 마련하지도 유지하지도 못한다고 트릴링은 생각한다. 「내가 自我 및 자아와 문화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점진적인 低下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자아와 문화에 관한 프로이트 사상이 주장하는 이론과 공식에 의해서 하나의 도전과 쟁점으로 합리화되고 있다.」³⁷⁾ 다른 에세이에서도 散見되는 문학과 프로이트의 관계가 개관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에세이가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아와 문화의 관계이며 이 관계에 대한 트릴링의 우려이다.

자아에 대한 문화의 형성력이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그런데 문화 자체가 억압적이며 순응주의를 강요할 때 자아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또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메카시즘이 떨치던 시기에 저명한 미국의 精神科의학자들이 충성맹서나 사상조사 및 과거 행적 조사가 국민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회합한 일이 있었다. 이때의 결론은 성숙한 超自我는 자유로운 민주사회에서만 최대한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면 진실과는 거리가 먼 생각임이 드러난다. 프로이트 자신의 경우가 좋은 반증이 된다. 프로이트의 성장환경이 되었던 19세기 후반의 비엔나는 反유태주의가 떨치고 의회는 무력하고 검열제도가 시행되던 半경찰국가속의 도시였다. 그럼에도 프로이트라는 성숙한 초자아가 발달된 까닭은 무엇인가? 트릴링은 프로이트가 처해있던 특정 문화상황속의 몇몇 사항이 사회의 영향과 프로이트의 자아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면서 가족상황, 유태인이라는 인종적 상황, 고전교육, 다른 나라의 文化, 언어와 과학의 사랑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 추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문화적 介在말고도 生物學的 사실로서의 자기의식이 있었다. 이러한 생물학적 사실로서의 자기의식은 물론 프로이트의 문화적 운명의 다양한 우연에 의해서 유지되고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어

37) Lionel Trilling, *Beyond Cultur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8), p. 103.

진 것, 所與, 즉 (하늘의) 선물이었다. 그것은 인간 정력의 특수한 量이요 質이었고 그 이름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였다.」³⁸⁾

생물학적 사실로서의 개인의 강조는 프로이트 사상의 반동적인 국면이라고 흔히 비판되고 있다. 인간존재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捨象하고 性과 年齡으로 그것을 정의하려는 관점의 취약성은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트릴링은 생물학적 사실에 대한 강조가 반동적인 이념이기는 커녕 해방촉진적인 이념이라고 역설적인 관찰을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문화가 全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문화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인간품성의 殘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인간품성의 잔여는 비록 기본적인 것이긴 하나 문화를 비판에 회부하고 그것이 절대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³⁹⁾

문화와 동떨어져 있는 자아의 존재의 확신이야말로 문화의 가장 고귀하고도 관대한 성취라고 믿고 있는 트릴링에게서 자아가 사회나 문화의 순응강요적 압력에 대항하는 개념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문화의 압력을 버티어내는 저항요소로서 자아의 생물학적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그 점에 있어서는 개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를 상기시키는 바 있다. 自我의 생물학적 사실 즉 그 생물학적 차원은 유연성과 신축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힘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억압적이고 순응강요적인 문화에 대한 저항요소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사회진보의 이성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국면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트릴링은 ‘소극적 능력’을 발휘하여 이 양면성을 동시에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트릴링의 뒷날의 비평적 행적과 연관시켜 볼 때 자아의 생물학적 차원은 보수적인 힘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트릴링은 문제의 해답보다는 제기에 만족하고 있다.

5

위에서 우리는 트릴링을 심리학적 비평가 혹은 정신분석 흐름의 비평가라고 정의하는데 기여한 그의 몇몇 에세이의 성격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에세이가 정신분석의 개념이나 용어로 작품분석을 시도하는 통상적인 심리학적 비평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임을 보았다. 그러한 시도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한정된 것이었다. 트릴링에게 있어서 프로이트 사상은 그의 비평적 특징이 되어있는 폭넓은 문화이해와 서구 인문주의 전통에 대한 충실의 일환으로서 그 비평적 개성의 기초와 배경을 이루고 있을 뿐임을 보았다. 그의 단단한 프로이트理解와 거기에서 비롯된 非專門的 언어를 통한 정신분석 개념의 절제된 응용이 그를 심리학적 비평가란 일부 통념을 낳게 될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38) 위 책, pp. 112-3.

39) 위 책, p. 113.

기는 하나 본인을 위해서 반드시 행복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그의 일면을 마치 전체인양 誤導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트릴링에게 프로이트思想이 의미했던 바를 보다 폭넓게 정의할 필요성과 마주치게 된다. 이때 트릴링이 많이 의존하고 또 감화받은 것이 프로이트 초기의 ‘꿈의 해석’이나 ‘일상생활의 병리’ 같은 경험과학 성향의 책이 아니라 후기의 보다 일반적인 ‘쾌락원리를 넘어서’나 ‘문명과 그 불만’과 같은 문화론 인간론적 사색의 책이라는 사실이 의미있게 떠오른다.

위에서 우리는 정신분석의 예술이해에 대한 기여의 하나로 ‘마음은 詩를 마련해 내는 器官’이라는 프로이트의 심리관을 트릴링이 들고 있음을 보았다. 트릴링에 대한 프로이트의 영향으로 우리는 트릴링이 자아, 초자아, 이드의 역동성과 갈등을 포함한 마음의 변증법적 模型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본능과 문화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自我的 안간힘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된 문화와 자아의 변증법의 수용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문화는 물의 흐름이 아니며 습수조차 아니다. 그 존재형태는 싸움이다. 아니 적어도 말싸움이다. 변증법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화에서나 자신의 내부에 그 변증법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의 의미와 힘이 그들의 모순속에서 발견되는 예술가들이 있기가 십상이다」⁴⁰⁾라는 귀절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수용의 일단을 보게 된다. 사실 트릴링에게서의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흔적은 이렇게 잠복된 형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프로벨이 세계의 단편에서 묻고 있는 것은 문화를 거부하고 초월할 때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라고 트릴링은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가장 높은 가치가 남아 있다. 그것은 自己否定속에서 긍정된 자아이다. 즉 희생 아닌 삶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다。」⁴¹⁾라고 트릴링이 해석할 때에도 우리는 프로이트 수용의 메아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트릴링은 프로이트의 기여로써 비극이해에 새 차원을 도입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 자신 비극이해에 있어 뛰어난 통찰력과 문체적 高揚을 보여준다. 비평적 에세이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말은 사람에 따라 칭송도 되고 비판도 되겠지만 비극에 관해서 발언할 때 그의 글은 기억할만한 잠언의 명징성과 함께 그 자체의 비장미까지 풍기고 있다. 키츠의 ‘소극적 능력’을 해석할 때 또 ‘진실이 美’라는 대목을 비극체험의 진수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보게 된다. 그의 비평적 이력이 진척됨에 따라서 그의 보수적 성향도 현저해지지만 이에 따라 삶의 비극적 인식도 깊어져간다. 비극을 결과적으로 스토이씨즘의 혼련으로 파악한 그는 삶을 스토이씨즘의 실천의 장으로 파악했다는 혐의가 짙다. 이때 프로이트사상 못지 않게 프로이트의 삶은 그에게 하나의 범례가 되어준 것 같다. 턱 部位의 암으로 33번의 수술을 하고 16년간의 고통스러운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프로이트는 고통

40) Trilling, *Imagination*, p. 9.

41) Trilling, *The Opposing Self*, p. 205.

속에서 뚜렷하게 사고하는 것이 아프지 않은 몽롱함 속에서 멍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면서 진통제의 투약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스스로 ‘무관심의 바다속에 떠있는 조그만 고통의 섬’이라고 규정한 프로이트 만년의 삶을 트릴링은 경탄하면서 적고 있는데⁴²⁾ 이 사실은 프로이트 개인사가 트릴링에게 준 영향의 일단을 설명해 준다.

트릴링의 비평적 명성을 확립해준 「자유주의 상상력」의 기본충동의 하나는 자유주의의 기본적 상상력에 준해서 자유주의의 드러난 징후를 비판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다양성과 복잡성, 곤란성과 가능성이란 기준으로 당대 문학의 투박한 실패를 비판하는 일이었다. 이때 트릴링이 그 필요성을 역설한 것의 하나에 ‘모랄 리얼리즘 moral realism’이 있다. 대개 리얼리즘이 사회묘사(일부의 사람들에게 있어선 심리묘사)를 향하고 있음을 참작해서 인간의 내적 충동이나 도덕 성향에 대해서도 예리한 천착을 시도해야 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다시 말해서 「도덕 자체의 의식이 아니라 도덕적 내적인 삶에 따르는 모순과 역설과 위협의 의식」⁴³⁾이 모랄 리얼리즘이다. 그것은 선과 악이 한데 뒤섞여 있으며 도덕적이라고 자부하는 행동의 배후에는 가혹하다고만 할 수 없는 충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知覺하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그것은 도덕적 행동에 따르는 위협의 지각이다. 트릴링은 모랄 리얼리즘의 결여가 인간과 현실의 피상적 이해의 근원이 되며 결과적으로 다양성과 복잡성의 배제를 낳는다는 것을 기회있는데로 지적한다. 그런 뜻에서 판단기준의 한 척도가 되는 개념인데 그 기초가 되어 주고 있는 것이 앰비벌런스를 특징으로 하며 이드, 자아, 초자아라는 位相으로 구상된 프로이트의 심리관이다. 트릴링에게서 발견되는 변증법적 사고에는 따라서 마르크스의 그것보다 프로이트의 그것이 압도적이다.

자유주의 상상력에 충실하려 하였던 트릴링이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모든 것에 반발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랄 리얼리즘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새로운 종류의 억압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생물학적 충동과 이를 제어하는 가정, 사회, 국가의 권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아가 형성된다고 보는 정신분석은 자아발전의 과정에 內面化된 권위가 지나치게 엄격할때 본능생활이 기능장애를 일으켜 건강한 자아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신분석의 反권위주의적인 함축이 계몽주의 이후의 자유주의 상상력에 매료된 트릴링에게 또 다른 이론적 보강을 제공해 주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프로이트 수정주의자들의 문화순응지향에 영향받음이 없이 생물학적 차원을 증시하는 프로이트의 고전적 입장에 충실했던 것은 트릴링의 현대문화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트릴링이 「자유주의 상상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시기는 30년대의 급진주의와 뒤이어

42) Ernest Jones, *The Life and Work of Sigmund Freud* ed. & abridged by Lionel Trilling and Steven Marcu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1), p. 20.

43) Lionel Trilling, *E.M. Forster* (New York: New Directions Books, 1964), pp. 11-12.

이른바 정치에 대한 환멸을 경험했던 지식인들이 다시 모든 뿌리가 인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시기였다. 혹은 실존주의로 혹은 종교적 열의로 정신의 갈등해소를 위해 나섰을 때 종교를 멀리한 世俗정신에 호소한 것이 프로이트 사상이었다. 한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그들 지식인에게 마르크스에 대한 해독제가 프로이트였다는 것은 전형적인 일이었다」⁴⁴⁾고 할 수 있다. 모달 리얼리즘이 성숙한 인간이해의 기준이라고 생각한 트릴링에게 있어 선과 악의 逆說을 동시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그대로 성숙의 지표였고, 이러한 성숙 권유의 모달리스트로 등장하는 것이 삶을 스토이씨즘의 실천으로 비치게 한 프로이트였다. 물론 프로이트가 트릴링의 유일한 영웅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영웅들을 포함한채 프로이트를 통해서 내면화한 二元的 혹은 변증법적 사고를 통해 트릴링은 미국문화에 있어서의 이원적 사고의 결여를 비판하였다. 그의 글에서 그러나 프로이트의 어휘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나름의 '소극적 능력'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극적 능력이 때로 「순수한 회피」⁴⁵⁾처럼 드러날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원적 사고에 내재하는 성향이라고 할때 그 검토는 또 다른 항목을 요청할 것이다.

44) Krupnick, *Trilling*, p. 117.

45) Mark Shechner, "Lionel Trilling: Psychoanalysis and Liberalism," *Salmagundi*, No. 46 (Spring, 1978), p. 29.